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한 새사람의 실재와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도

성경: 눅 11:1-13, 엡 6:17-18, 골 1:3, 9, 3:1-4, 15-17, 4:2, 12, 히 2:17, 4:14, 7:26, 8:1-2, 계 5:6

I.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는 원칙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 눅 11:1-13.

- A.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며,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
- B. 합당한 기도의 결과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 눅 11:2-4.

II. 참된 기도를 하는 중에 갖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새사람의 실재를 만질 수 있게 된다 — 골 1:3, 9, 4:12, 빌 1:20-21상.

- A. 참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는 영 안에 있고 주님과 한 영이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 — 고전 6:17, 빌 1:20-21상.
 - 1.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때의 체험과 같아야 한다.
 - 2. 기도할 때의 우리의 체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 3.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한 영이고 그분께서 실지로 우리와 한 영이시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 고전 6:17.
 - 4.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문화 밖에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한 영일 것이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살 것이다.
- B. 참된 기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밖에 있다. 특별히 우리는 문화와 관련된 우리의 의견 밖에 있다 — 골 3:10-11.
 - 1. 우리가 참된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문화와 관련된 우리의 의견 밖에 있는 것을 더욱더 체험할 것이다.
 - 2.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영 안에서 참으로 하나이다.
 - a. 그럴 때 우리는 한 새사람의 실재를 만진다.
 - b. 그럴 때 우리는 새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조성되고 이 영역 안에는 문화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III. 기도가 전투 곧 싸움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서 꾸준히 힘써야 한다 — 골 4:2, 엡 6:17-18.

- A. 하나님 편에서 사탄에 대항해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서 꾸준히 힘써야 한다.
- B. 하나님 편에 선 이들로써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에게 대항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서 대항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 골 2:1-3.
 - 1. 우리의 환경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기도와 상반된다.
 - 2. 기도에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안에도 있다 — 마 26:41.

3.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조류(潮流) 혹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 a.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환경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b. 기도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다.
 - c. 기도만이 우리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 눅 18:1-8.

IV. 한 새사람을 위해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과 관계있다 — 골 3:15-17.

- A. 그리스도 자신인 그리스도의 화평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이제 우리는 몸의 생활과 한 새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골 3:15.
- B.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골 2:19, 3:16.
 1. 우리는 닫혀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존재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열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해야 한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리를 잡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며,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해야 한다.
 3.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C.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 영 안에서 행동함으로써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한다 — 골 3:17.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야 한다.

V. 그리스도는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히 2:17, 4:14, 7:26, 8:1-2, 계 5:6, 골 3:1-4, 1:9, 4:12.

- A. 그리스도는 대체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일곱 눈을 가진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신다.
- B. 하늘들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 — 골 3:1-4.
 1.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대한 반향이 되어야 한다.
 2.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골 3:1.
 3.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그것을 반사한다.
 4.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목적은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 C.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길을 얻으신다 — 골 1:18, 2:19, 3:1-2.

1. 머리가 하늘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행정을 수행하심으로 일하실 때, 몸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반사함으로써 일한다 — 히 2:17, 4:14, 7:26, 8:1-2, 계 5:6.
 2.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연장으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대사이다 — 골 1:9, 12-13, 4:11-12.
- D.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인의 위대한 사업으로 완전히 점유될 것이다 — 골 3:1-4, 17.
1.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할 것이고, 하늘에서 그분은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고 계신다.
 2.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하며, 제사장 직분과 사역과 행정을 수행하시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 E. 회복이 '주님의'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한다 — 계 5:6, 엡 1:19-23.
1.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신성한 전달, 곧 하늘에 속한 흐름이 있다 — 엡 1:22.
 2.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여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주입받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교류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에 반응할 것이다.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함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사람-구주의 가르침을 본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거듭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세우신 기도의 본에서는 그러한 요점을 발견할 수 없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얼핏 보면 이 문제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이 절들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지 모른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2-4절) 나는 이 짧은 밑줄을 상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의 결론은 우리가 거듭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의 결과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절들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기를 권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깨달음이며 나의 체험이다. 나는 나의 체험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만 그분의 풍성과 함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분의 풍성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런 후에 그분 안에 있는 이들로써 그분과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과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 가운데 종종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예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형제는 아내에게 화를 낸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 당신은 바르고 공정하십니다. 당신은 제 아내가 나쁘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죄 빛진 아내를 용서하오니 저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예증한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는다. 우리는 단지 신문의 광고로 인해서도 빗나가 그분을 떠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므로, 매일 아침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의 결점에 관해 상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세한 항목들을 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저에게 죄 빛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의 죄들도 용서해 주소서.”와 같은 기도는 포괄적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공급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27장, 229-231쪽)*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수 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였다. 그분의 공훈과 은혜로, 오늘날 이 땅 위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주님과 하나라고 주님께 말하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는 밤낮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 “아멘, 주님.”이라고 말함으로써 반응할 때, 나는 깊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시고 공급하시며, 그분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요소를 나에게 주입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다. 이러한 전달과 주입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의 권익을 위해 충만하게 되며 감동된다. 때때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이것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우리는 종교나 철학 또는 윤리적인 교훈들과 같은 땅에 속한 온갖 요소들을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그분의 지체들 안으로 그분의 풍성을 전달하시는 것만을 주의할 것이다. 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의 옮겨 부음을 체험하고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옮겨 부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나 종교나 문화

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의 중보 기도와 그분의 사역과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매우 바쁘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그분께서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지방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전적으로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단장하는 목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그것에 반항하는 것이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증거한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꺼이 아무 의미 없는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사이의 교통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전류의 흐름을 느낄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통하여 신성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주입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하나 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되게 한다. 이것은 또한 새사람을 새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늘에 속한 전달과 옮겨 부음을 통하여 실질적인 방식으로 새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사람은 가르침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통과 왕래와 옮겨 부음을 통하여 산출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61장, 616-617쪽)*

기도와 전쟁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꾸준히 힘써야 할 것은 기도이다. 기도가 전투와 싸움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양편 곧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적대적이다. 사탄의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이다. 사탄은 밖으로는 원수이고, 안으로는 대적자이다.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을 패배시키려 하는 원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손상을 입히려 하고 하는 대적자이다. 대적자로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출입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이다. 욥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본다(1:6-12).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원수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따르면,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비난한다.

비록 우주 안에 있는 맹렬한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것이지만 제삼자가 개입되었다. 이 제삼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로 구성되며, 사실상 그들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편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실지라도 그분은 패배하실 것이다. 무한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의 하나에게 대항해 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으실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이 사탄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은 사탄을 대항하는 전쟁을 수행해 나가실 길이 없다. 그분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한다. 이 때문에 그분은 실질적인 전쟁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에게 대항해 싸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온 세상의 추세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흐름과 추세에 대항하는 것이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힘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흐름에 의해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노를 젓거나 기도하는 데 힘쓰는 일에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온 우주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강한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로서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를 대항하며, 특히 우리의 기도를 대항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매일 우리가 기도와 관련하여 갖는 많은 체험들은 사탄이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올 수 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 하늘을 만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단지 상대방에게 잘못 건 전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기도하는 영은

당신을 성가시게 한 일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방문객이나 집 안에 있는 애완동물들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에 저항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기도의 유익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기도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다. 사실상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대단히 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중보 기도와 사역과 행정으로 점유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에서의 모든 작은 문제들을 돌보시게 하라. 우리의 의무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반향이 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실 길을 갖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연장으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대사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하늘에 속한 대사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왕국의 대사가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간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시다.”라고 말한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는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긍휼과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될 것이다. 이 어떠한 보답인가! 기도 안에서 은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보좌로부터 우리의 존재 안으로 강같이 흐르는 것이다.

이 은혜의 강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전지가 하늘에 속한 전류로 충전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전류, 즉 신성한 전기는 보좌로부터 우리 안으로 흐르는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공급과 누림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는 그들의 영적 건전지가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전달이 부족하다. 온종일 우리는 거둬서 신성한 전류로 충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기도의 또 다른 유익은 주님과 교통에 관련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바름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통을 갖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분과 교통을 가질 수 있는가?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며, 참으로 그분과 한 영이고 그분께서 실지로 우리와 한 영이시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하나를 체험하고,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더욱더 그분과의 교통을 갖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보상인가!

처음에는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실행한다면 점점 더 쉬워질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기도의 보상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 새사람의 새롭게 됨,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 등이 필요함을 보았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문제들은 모두 기도를 요구한다. 그것들을 실행하고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는 우리를 이 네 가지 것들의 실재 안으로 안내하며 우리를 이 실재 안에서 지켜 준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65장; 652-653, 656-657쪽)*